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8호 [루체 제 26222호] 주제 107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작곡

로시아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 작곡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작곡이다. 그는 아리랑과 라디오 콘서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방식이 11월 28일에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평도자의 지도밑에 창작원

성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전통적인 민요인 『아리랑』을 종자로 하여 조선민족의 역사와 배일의 지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세계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기니스세계기록에 등록된 『아리

랑』에 이어 얼마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력을 자랑하는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그이의 현명한 평도밑에 조선이

보다 더 훌륭한 앞날에도 비약하

라고 확신한다.

황홀한 예술공연을 관람한 외국인

사들은 경탄을 금지 못하였으며

각국 언론들은 김정은각하의 평도를

맡은 조선을 알리거니와 공연 『빛나는

조국』을 보라고 보도하였다.

오늘날 김정은의 고령도자께서는

현시대의 가장 충실했던 정치지도자로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그이의 현명한 평도밑에 조선이

속에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넘기었

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을 불례의

사회주의 보루로 다져지고 나라의

통일과 조선만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

었다.

그이의 현명한 평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정지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온갖 꽃이 나카도록 되고 있다.

주체혁명위업을 및 나게 계승완성

해 나가는 김정은각하의 평도밑에

조선인민은 김정일평도자의 토대

를 마련해주었다.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

국과 인민을 위한 현신의 길을 쉬었

【조선중앙통신】

## 사회주의 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여러 나라에서 회고행사 진행

하신다.

세계각국으로 동당 정치국 위원회에서 열린 행사를 빛나는 박근혜를 조선에서 보다 훌륭한 결실들이 빛나고 있다.

그이의 새원원 명도밑에 조선에서

민족을

밀었다.

이 슬란드조 선민주의 인민공화국

문화 및 천성학회 위원장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는 조선

인민과 세계 전보적인 민들의 마음

속에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넘기었

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을 불례의

사회주의 보루로 다져지고 나라의

통일과 조선만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

었다.

그이의 현명한 평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정지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온갖 꽃이 나카도록 되고 있다.

주체혁명위업을 및 나게 계승완성

해 나가는 김정은각하의 평도밑에

조선인민은 김정일평도자의 토대

를 마련해주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의

현신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증명하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의

# 이민위천은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이였습니다. 김정은

## 인민의 행복을 꽂고 사랑과 헌신의 한평생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걸다가도 솟구치는 그의 음에 차에 운 어버이의 영상을 뜯어보는 인민이다.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일하시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막으로 여기시던 우리 장군님,

한평생 이 땅의 땅 땅 풍토로 유행없는 신친의 길을 이어가며 인민 사랑의 천실 같은 이 야기들을 풀어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 같은 모습을 우리 어찌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간들 앓을 수 있으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김정은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을 펼쳤던 장군님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누구나 헤쳐올수 있는 길,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간직한 인민의 어버이세상에 걸으실수 있는 길이였다.

온 나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족은 옆마비이며 그길에 기적과 혁신의 불길은 얼마나 세세하게 타번졌던가.

얼마전 사회주의 선경으로 자행편치는 사례원시 미곡협동농장을 찾았던 우리는 조국의 무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비친신 우리 장군님의 한생은 한 사람과 한 민족의 한생이었음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취재자가 사례원시를 조금 지나듯 있었는데 우리의 눈앞에 아름다운 미곡리의 풍경이 안겨왔다.

책 보기에도 절경에 소리를 차운 드물게 미곡리 풍경이었다.

농장의 한 일꾼은 지금도 사례원

시 미곡협동농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업적이 많이 것들어있는 뜻깊은 농장이며 자신의 정든 농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장군님의 차에 운용성이 커녕에 행정이 둘려오는 것만 같다고 하면서 뜻을 그늘에 우울이 들어갔다.

주제 9(2008)년 12월 11일 미곡벌은 끝없는 환희로 새차게 끌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풍년은 가을날에 그이를 모시고 싶어하는 농장원들의 마음을 려아보시고 또다시 이 끝없는 사랑의 풍경이었다.

방이안은 사랑에 목에 가슴풀며 이는 미곡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달리 인사를 나누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락짜리 가동설레와 토지정리, 농사와 청년작업반에 헌신하였다.

순간 일군들은 자체 감에 훨씬 했다.

농사를 잘 지었다고는 하지만 정보당 말기수확을 위하여 바라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불이켜보면 미곡벌에서는 는비를 정보당 10% 내외로 하는 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흔이었고 위대한 장군님의 단과이다.

그이의 이 가르침에는 미곡협동농장의 청년작업반원들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촌청년들이 사회주의 동촌의 앞날을 빼고나갈 억센 기

동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그나쁜 기대가 담겨져 있었다.

이윽고 농사와 청년작업반학습을 돌아보니 며칠 후 정보당 10% 내외 한다고 거듭 당부하면서 그 방향과 방도를 완히 밝혀 주시였다.

그러시며 미곡을 이어가지 않으시여 그후에는 험직인 기계수확반들도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논비생산성형을 말씀드리는 일군의 목소리는 퍼스터리를 젖어있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만

하면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하시는 것

이었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솟구치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나라의 빛돌을 책임진 주인으로서

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기들을

책임할 대신 오히려 떠나기 격려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곡벌이 아주 멋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곡벌을 드리게 될것으로 하여 일군들의 물의 모임과 마냥 즐거웠다.

이때 한 일군이 미곡벌 농장원들이 활금이 약 설계이는 미곡벌을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자 손꼽아 기대해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곡

협동농장 농장원들이 풍년은 가을날에

내고자 기대했다고 하였지만 시

간을 내지 못하여 오늘에 왔다고

다행이 이르렀다.

정녕 우리 장군님과 미곡협동농장

농장원들이 예상과는 뜻같은 순간이었다.

걱정에 잠들어 있던 일군들을 바라보니 시민들의 삶장을 선군시대 더불어 영원한 풍광을 미곡벌을

펼쳐주시려는 그이의 구상과 의도를

무리지어 올려보니 이 풍경에 떠나

바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명한

병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었다.

어버이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은

시민들의 헌신과 헌신으로 미곡벌이

놓여온 농장이었다.

나라의 농장!

나라의 농장과 곡에 높은 알곡증산

으로 조국을 떠난 일군들이

수없이 많아도 우리 장군님의 정든

농장으로 다정히 불러우는 농장이

또 어디에 있었던가.

위대한 시대를 정직한 또 하나의 풍경이 다름이 아닌 이곳 미곡땅에서

데려온다니고 생각하니 농장일군들의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올랐다.

들이켜보면 지난날 불활에는 가을

이 들어 땅이 거북등처럼 갈라파지

한족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미곡벌의 풍경에서 홍화는 사회주의농촌의 밝은 매일을 그려보시며 한민족을 지으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곡벌이 아주 멋있다고 말씀하시었다.

나라의 빛돌을 책임진 주인으로서

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기들을

책임당할 대신 오히려 떠나기 격려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곡벌이 아주 멋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장군님께서는 미곡수확고가 가장 높은 극장지대로 전락되었으니 이 풍경에 떠나

미곡벌을 끌어온 미곡벌을

고장마다 새겨진 땅이 바로 미곡벌이

이었다. 그러면 미곡벌 오늘은 빠기 논데

신네모반듯한 규격포장들이 눈부리

아득하게 펼쳐지고 물결정을 모르며

미곡수확고가 가장 높은 극장지대로 전락되었으니 이 풍경에 떠나

미곡벌을 끌어온 미곡벌이

이었다. 미곡벌은 미곡벌을

고장마다 새겨진 땅이 바로 미곡벌이

</div





시초

# 동해는 눈부시다

박혁

동해의 금파도와  
순목장고파  
금강상 만불상이 달려왔는가  
명사지의 온모래에  
발목물고지  
만이천봉우리도 내려섰는가

임령이며 뒤설리는 적정의 파도는  
동해에 네가 아니파  
내 가슴에 쓰는구나  
아직은 건설장이건만  
그것만으로도 흥한한 차태  
신기루미당 일어서는 거적의 술  
아, 판광지구건설장의 눈부신 모습!

정녕 어느 기슭이더니  
이 창한 앙오시며  
풀이지는 폭죽에 우리 원수님  
땀으로 웃자락 화학하니 적시시며  
불처럼 화학 다는 백사장과  
마음홍그리기 걸으시면 그날의  
자옥이에

흔합기소리 우렁한 전설의 적전장  
에서  
인민의 웃음소리 범복 들으시는가  
행복의 인파십리 그리시는가  
환하게 웃으시던 어비이 그 영상

— 미디어 풍경에 이어온다

파도모양, 조가비모양 멋진 새  
집들과  
초고층건물들도 조화롭게 얹히면  
명성의 만불상이 울다 같거요  
하하하...

천년을 만년을 출렁이는 바다에  
물남에 오시고  
불법속에 오시고  
마기류의 천비판 맞으며 또 오시면  
진주보다 소중한 그 자우자우  
읍으며  
달려 달려와 이 기슭을 감싸는가

만복의 무지개를 물같이 떠올리려  
온 한해 헌신의 날과 달 달려오신  
어비이  
심혈의 그 투수한 낮과 밤  
백사장의 온모래  
알양이 세이면 다 해아리라  
동해의 맑은 물  
방울방울 헤이면 다 알라

아, 동해명승 명사십리는  
온모래 심례에 펼쳐져 눈부시던가  
해들이 절경으로 눈부시던가  
가없는 인민사랑의 비단우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  
우리 원수님 그 품이 솟아  
문명의 새 절경은 아름답구나  
우리네 동해는 눈부시구나

## 흰구름 감도는 만장에 올라

김철웅

발밀에 흰구름 감도는 만장에 올라  
내 마을 다시 걸어보노라  
정월부터 풍지설장까지  
온 한해 오르내린  
금이감이 추억의 축계길을

한층 또 한층  
처음에는 그리도 숨가쁘던 길

하나 이제는  
흔한물을 지고 철근을 메고도  
한모족에 두세계간 가벼워지 오른다  
몸도 마음도 함께 자란 길이여

어느 총이나  
방수로를 빚어발기면  
한겨울의 해풍과 치우며보관듯이 얹은 첫 총막우에  
붉은기를 휘날리면 그 격걸더는

침방— 뒤여들고픈 바다를 걸에  
두고도  
아슬한 하늘에서 칠근을 엎으며  
풀이지는 품으로 미역을 감으며  
불대위와 싸워 이긴 승리자의  
자우자우...

스치지난 벼제의 작은 실금도  
후세에 날지 절 왕실의 흥길 같아  
스스로 비상구방 내비린 그람이며  
압승끼로 올리는 풀들이 성자지 않아  
지고 오른 꽃재를 총막우에 풀을  
때면  
조국이 따뜻 짐을 떨어낸것만 같아

십과리 명사십리  
이름은 유령제도  
김대안 무성하여 한적하던 곳  
두동실 끌래핀듯 나래웠던 길매기  
반듯  
우물우물 대 진설의 일만경 솟구  
치니  
오늘은 기적의 심리 전변의  
설리

십과리 명사십리  
우리 원수님  
사랑의 해빛 천만가다 뿐리시니  
모래 알은 모래 알마다 반짝이는  
운나파를 반기는  
신비경의 심리 무아경의 설리

금모래 은모래를 밟으며  
금물결 은물결에 뛰어들며  
바다우에 넘치는 인민들의 웃음  
소리  
며 블색 유희 장엔 어لون아이  
『동갑』되어  
하하호호 절처갈 즐거운 웃음을  
파도

— 10차량의 세인트를 또 떠나  
보냈소바빠도 즐겁기만 한 현장지명원  
전화통에 대고 한마디 하는 소리  
— 고백되니 친구들!  
완공되면 자녀들을 첫 손님으로  
청하지...

가설막 풀썩이는 호랑한 웃음소리...

바다가보래불에

회일 속에 맞이하던 견실장의 아침  
이여

총파 춤을 날아넘으며  
새월을 뛰어넘었노라  
단숨에 솟구쳐울린 거적의 창조물은  
시대의 거인으로 자라는  
미륵은 청춘 우리의 모습

한계단 또 한계단  
오르고 오르는 쟁계길은  
왕궁의 그늘에 빙어 가나니  
아, 흰구름 감도는 만장에 서서  
가슴부풀에 맛보는 긍지와 자랑이며  
나에게 생각되거나 여기가 바로  
조국앞에 빛나는 위훈의 단상이  
마고

천이망만이랑 동해의 불길은  
해당하고 고운 이 기슭에  
수수원년 안겨들여 임갖추며  
고작 모래불심리를 펼쳤어도  
아허와 한해안에 교통당시대는  
운 천상이 달려온 멀천지를  
멀쳐 차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